

“마지막 사격서 우승 직감했다”

“여수 부모님께 감사”...오늘 또 메달 도전
청소년올림픽 근대 4종 금메달 김대범



“유소년 마지막 대회에서 후회가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다짐했는데 금메달을 목에 걸게 돼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여수 출신 김대범(18·한체대 1학년)이 22일 싱가포르 스포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제 1회 청소년올림픽 근대 4종(승마 제외)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불모지나 다름없는 한국 근대 5종에 희망을 선물했다.

한국의 근대 5종 국제대회 첫 개인전 금메달의 주인공이 된 김대범은 펜싱에서 심판 판정이 잘못되면서 7위로 경기를 시작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극적인 우승 주인공이 됐다.

김대범은 23일 광주일보와의 국제전화에서 “육상 롬바인에 들어가기 전에 잘하면 선투로 치고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마지막 사격을 하면서 우승을 직감했다”며 “소름이 끼칠 정도로 짜릿한 기분을 느꼈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지난 6월 세계유소년선수권대회에서 계주 1위, 개인 3위를 차지하며 태극마크를 단 김대범은 여수 한려초-문수중에서 수영 선수로 활동했다. 전남체고 1학년 때 근대 5종으로 종목을 바꾼 뒤 끊임없는 노력으로 정상의 자리에 올랐다.

김대범은 “근대 5종의 경우 경기 시간이 5시간이 넘게 걸리기도 한다. 체력적인 소모도 많고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경기가 끝나면 체중이 2~3kg가 줄 정도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관심이 적고 비인기 종목의 설움도 있지만 운동하는 동안 항상 최고가 되자는 생각으로 내 자신을 믿고 경기에 나서고 있다”

고 말했다.
근대 5종은 경기보다 더 힘든 게 훈련이다. 하루 5종목을 모두 훈련해야 하는 만큼 김대범은 새벽 5시부터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야간 훈련까지 소화하면서 대회를 준비했다.
힘든 운동을 하는데 가장 큰 버팀목은 가족이다. 김대범은 “고양이 계신 부모님께서 항상 믿고 묵묵히 응원하신다. 금메달을 따기까지 식구들의 응원이 가장 큰 도움이 됐다. 같이 운동을 하는 작은 누나도 든든한 후원자다”며 가족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대범은 1남2녀중 막내로 둘째 누나인 김효진도 여수정보고에서 유도를 하고 한체대에서 레슬링을 전공하고 있다.
김대범은 24일 근대 5종 복합경기에 출전해 다시 한번 메달에 도전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무조건 롯데 잡아라



‘4강 불씨 살리기’ 오늘 부산서 한판대결

4강 탈락 위기에 몰린 ‘디펜딩 챔피언’ KIA 타이거즈가 24일 롯데 자이언츠의 홈으로 건너가 사활을 건 한판 대결을 벌인다.

KIA가 삼성과의 주말 3연전에서 모두 패배를 기록하는 동안 롯데는 SK에 이어 두산에 상대로 승을 싸워서 하며 6연승 행진을 달렸다.

극과 극의 한 주를 보내며 4위 롯데와 5위 KIA의 격차는 6경기차까지 벌어졌다. 두 팀 모두 21경기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순위 뒤집기는 더욱 어려운 미션이 되버렸다.

롯데는 23일 현재 56승3무53패로 5할 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남은 21 경기에서도 롯데가 5할 승률을 거둔다고 가정한다면 67승3무63패, 무승부는 사실상 패이기 때문에 67승6패가 된다.

50승62패의 KIA가 롯데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17승을 더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남은 세 번의 맞대결과 상관없이 KIA가 상대전적에서 롯데에 앞서기 때문에 67승으로 동률을 이룰 경우 KIA가 승자가 되지만, 21경기에서 17승을 수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KIA가 지난해 8월 투·타의 환상적인

조화로 20승 4패의 기적같은 승리 행진을 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올 시즌 상황은 판관이다. 흔들리는 마운드에 타자들의 줄부상, 중심타자 최희섭의 난조까지 겹쳤다.

또한 ‘17승’이라는 계산은 롯데가 남은 경기에서 5할 승률을 기록한다는 가정 아래 나온 수치다. 불붙은 롯데 방망이가 5할 이상의 승률로 고속질주를 할 경우 KIA의 4강 탈락 선고는 더 빨리 이뤄질 수도 있다.

사면초가에 몰린 KIA지만 지난해 챔피언으로 호락호락 물러날 수는 없는 입장이다.

김수완·이재근 두 신에 투수의 등장 속도에 롯데 마운드가 승승장구 하고 있지만 ‘부실한 뒷문’은 롯데의 아킬레스건이다. 전반기에도 가공할 만한 방망이의 힘을 앞세우고도 들쭉날쭉한 마운드 탓에 좀처럼 순위 싸움에서 앞서 나가지 못했던 롯데다.

KIA는 로페즈·서재응의 활약과 윤석민의 가세로 힘을 얻은 만큼 최대한 4강 승부를 길게 끌고 가야 유리하다. 특히 24일 시작전은 ‘기적’을 위해서 반드시 잡아야만 하는 중요한 승부다.

콜론은 팀의 4강 최후의 갈림길에서 선발투수로의 막중한 임무를 맡았다. 총공세를 예고한 KIA는 발목부상을 당했던

‘폭풍질주’ 신승길까지 투입해 전금같은 1승 사냥에 나선다.

사격에서 롯데와의 혈전을 벌이게 되는 KIA는 이후 안방에서 4경기를 갖는다. 25일 LG, 26·27일 SK 그리고 29일 넥센과의 대결이 KIA를 기다리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가슴 타박상 이종범 2군행

가슴 타박상을 당한 KIA 타이거즈의 외야수 이종범이 2군행을 자청했다.

23일 엔트리에서 제외된 이종범은 “팀이 어려운 상황인데 제 역할을 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22일 경기가 끝나고 2군행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종범은 지난 14일 롯데와의 홈경기에서 수비 도중 펜스에 부딪혀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검진결과 단순 타박상 진단을 받았지만 가슴 통증이 계속돼 그동안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됐다.

부산 이후 4경기에서 대수비와 대타로 4타석에 들어섰던 이종범은 감기몸살까지 겹치면서 재활군행을 선택했다.

이종범의 자리에는 발목 인대 부상으로 재활군에 머물렀던 신승길이 등극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국 3위 질주

금 10·은 2·동 3개

지구촌 청소년 스포츠 대축제에 참가한 한국의 10대들이 역대 최고 성적에 도전한다.

장호성 단장이 이끄는 한국선수단은 제1회 청소년올림픽이 종반으로 접어든 23일 오전 현재 금메달 10개,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해 국가별 종합메달 순위에서 중국(금24, 은14, 동4개)과 러시아(금16, 은13, 동10개)에 이어 3위를 달리고 있다.

비록 청소년 대회이긴 하지만 이 같은 순위는 한국이 첫 출전한 1948년 런던올림픽 이후 동·하계 성인 올림픽을 통틀어 역대 최고 성적이다.

한국은 1988년 안방에서 열린 서울올림픽에서 종합 4위(금12, 은10, 동11개)에 오른 것이 최고였다.

원정 올림픽은 하계대회의 경우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금12, 은5, 동12개)과 2008년 베이징올림픽(금13, 은10, 동8개)에서 종합 7위에 오른게 가장 좋았다.

동계대회는 지난 2월 밴쿠버올림픽(금6, 은6, 동2개)에서 종합 5위가 최고였다. 이번 청소년올림픽을 앞두고 한국선수단의 목표는 금메달 7개 이상을 획득해 종합 10위 이내에 진입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한국은 대회 첫 날 펜싱 사브르에 출전한 송종훈(17·전남공고)이 매 경기 역전드라마를 펼치며 각각 금메달을 따내더니 이튿날은 수영 남자 접영 100m에서 장규철(18·경기체고)이 값진 금메달을 획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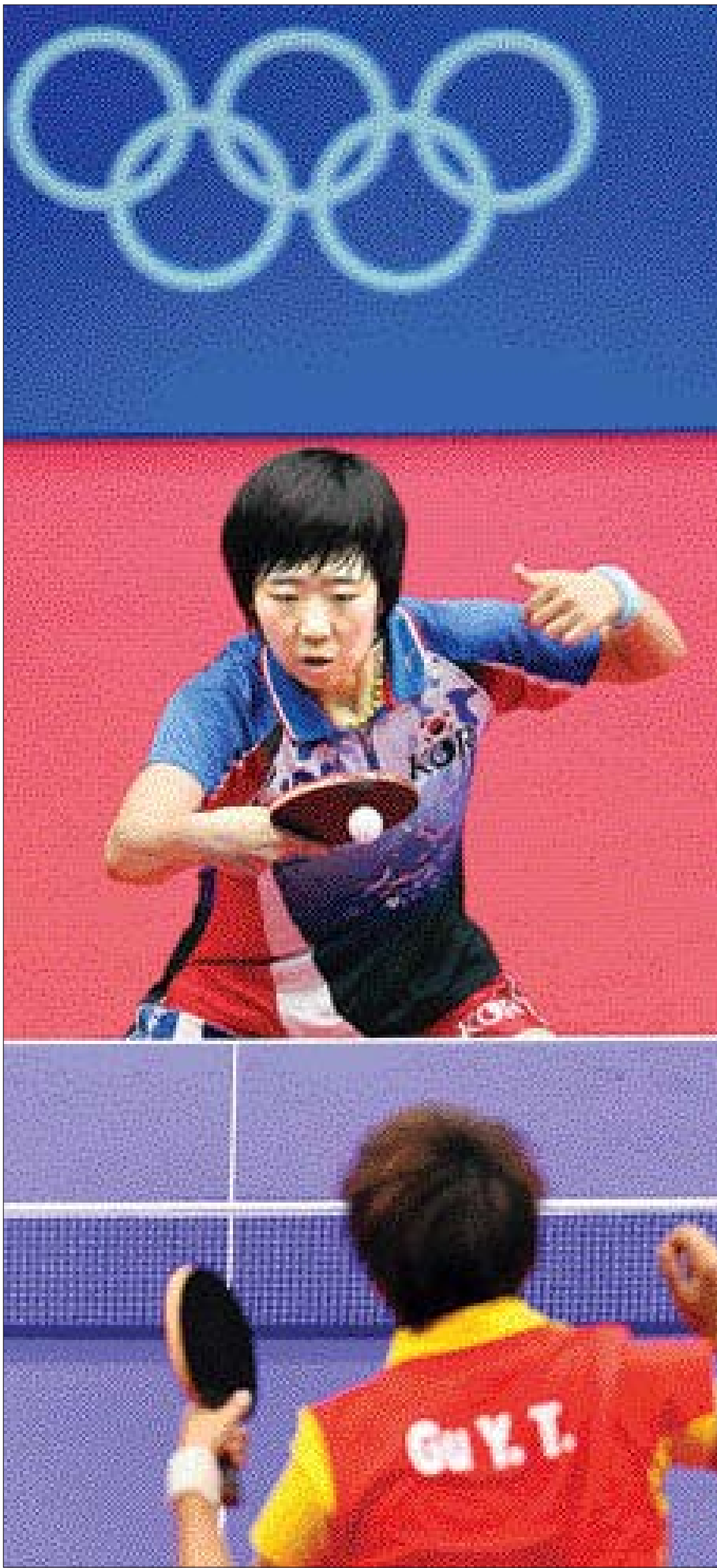
효자종목 태권도는 서병덕(17·동성고)과 김진학(17·부천 정산고), 전수연(17·관악고)이 금빛 발차기를 했고 유도는 이재형(17·보성고)과 배슬비(16·경남체고)가 동반 우승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김장미도 금 명종

한국 사격의 기대주 김장미(18·인천 예일고)가 제1회 청소년올림픽에서 한국선수단의 10번째 금메달을 명종시켰다.

김장미는 23일 싱가포르 스포츠스타디움 사격장에서 열린 사격 여자 10m 공기권총에서 본선과 결선 합계 479.2점을 쏘 중국의 광수예(471.5점)를 여유있게 따돌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과테말라의 게랄딘 솔로자노는 471.5점으로 광수예와 타이틀을 이뤘으나 슛오프에서 저 동메달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만리장성을 넘어라
23일 오전 싱가포르 인도어스타디움에서 열린 탁구 여자 4강전에서 한국 양하은이 중국 구유퉁의 공격을 받아내고 있다. 양하은은 이 경기에서 져지만 3~4위전에서 태국 시웨티부트를 4-1로 제쳐 동메달을 땀다.
/연합뉴스

서석초 야구 ‘스포츠토토배’ 우승

서울 도신초 7-4 꺾어... 올 전국대회 2연패

광주 서석초가 올 시즌 전국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서석초는 23일 강원도 속초 설악고 야구장에서 열린 2010 스포츠토토배 전국유소년 야구대회 서해리 결승에서 서울 도신초를 7-4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8월14일 대전에서 끝난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공동 우승을 달성한 서석초는

이번 대회 우승으로 올 시즌 전국대회에서 두 차례 패권을 차지했다. 서석초는 지난 6월 제7회 KIA타이거즈기 호남지역 초등학교 야구대회에서도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지난 16일 개막한 유소년 야구대회는 전국 초등학교와 리틀야구팀 등 총 207팀(초등 98팀, 리틀 109 팀)이 참가, 초등부 4개 리그와 리틀부 3개 리그 등 총 7개 리그로 나

뉘 진행했다.
24·25일에는 리그 우승팀끼리 맞붙는 왕중왕전이 전개된다. 서해리고 우승팀 서석초는 24일 동해리고 우승팀 대구 남도초와 대결을 갖고 왕중왕전 결승 진출에 도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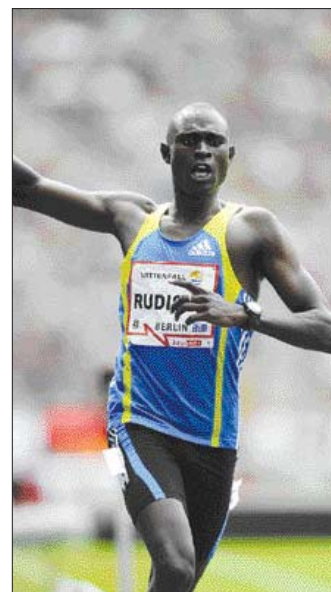
서석초 양윤희 감독은 “남도초 마운드가 좋지만 올 시즌 대구로 전지훈련을 가서 두 차례 맞대결을 벌인 경험이 있다”며 “두 경기에서 모두 승리했던 만큼 선수들이 자신감 있는 경기를 펼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백두리고 우승에 도전했던 화강초는 마산 무안초에 2-3으로 패했고, 한라리고의 서림초는 3-4로 저 대구 육산초에 우승컵을 내줬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남 800m 세계신 13년만에 깬다

케냐 루디샤 1분41초09... 0.02초 앞당겨

케냐의 다비드 루디샤(22)가 남자 육상 800m 세계기록을 13년 만에 갈아치웠다.
루디샤는 23일(한국시간) 독일 베를린 올림픽아 슈타디온에서 끝난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월드 챔피언십대회 800m 결승에서 1분41초09를 찍고 우승했다.
이 기록은 1997년 8월 케냐 출신 덴마크 중거리 선수인 윌슨 킵케터(38)가 세운 1분41초11을 100분의 2초 앞당긴 신기록이다.
400m 트랙을 두 바퀴 도는 800m 경기는 지구력과 스피드를 동시에 견뎌야 하는 종목으로 자리를 둘러싼 치열한 몸싸움까지 벌어져 ‘전쟁터’로 불리는 종목이다. 기록보다도 순위 싸움이 중요하게 여겨져 세계기록이 오랜 기간 정체했지만 해성처럼 등장한 루디샤가 순식간에 새 이정표를 세우고 최강자로 우뚝 섰다.
한편 여자 800m에서는 성 정체성 논란을 딛고 트랙에 돌아온 카스터 세메나(남아프리카공화국)가 1분59초90의 좋은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다.
남녀 100m에서는 네스타 카터(9초96)와 세론 심슨(11초09) 등 자메이카 남매가 동반 촉베를 들었다.
/연합뉴스



‘테니스 황제’ 페더러 시즌 두번째 우승

웨스턴&서던 파이낸셜 마스터스 역전승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2위·스위스)가 시즌 두 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페더러는 23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ATP) 웨스턴&서던 파이낸셜그룹 마스터스대회(총상금 243만달러) 단식 결승에서 마디 피시(36위·미국)에게 2-1(6(5)-7 7-6(1) 6-4) 역전승을 거뒀다.

시즌 첫 메이저대회였던 호주 오픈 우승 이후 결승에 세 차례 올랐으나 모두 준우승에 그쳤던 페더러는 투어에서 개인 통산 63번째 단식 정상에 올랐다. 투어 단식 최다 우승 기록은 지미 코너스의 109회고 이어 이번 랠들 94회, 존 매켄로(이상 미국) 77회 순이다. 페더러는 이번 우승으로 비온 보리(스웨덴)와 동률을 이뤘고 4위 피트 샘프러스(미국)와는 1개 차로 따라붙었다.

페더러는 30일 시작하는 US오픈을 앞두고 통산 17번째 메이저대회 단식 우승 가능성도 불쭉했다. 복식 결승에서는 블-마이클 브라이언 형제(미국)가 마헤시 부파티(인도)-막스 미르나이(벨라루스)를 2-0(6-3 6-4)으로 꺾고 투어 통산 64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브라이언 형제는 이달 초에 이미 토드 우드브리지-마크 우드포드(이상 호주)가 갖고 있던 61회 우승 기록을 뛰어넘어 새 기록을 쓰고 있다.
/연합뉴스

